

社說

소통과 화합 교육과 포교

혁명성성(革凡成聖)이란 범부를 고쳐서 성인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이는 아무리 범부라도 부단한 노력에 의해 성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신년하례에서 "도제양성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 전종도 평생교육을 통해 범부를 성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따지고 보면 승가는 그 자체가 교육집단이다. 일상 의례나 참선 간경 등의 수행도 모두 교육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이란 것은 부단한 자기 계발이고 스스로 정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수행자는 평생 교육받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신년하례 법회에서 강조한 것은 소통과 화합, 교육과 포교로 요약된다. 소통과 화합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덕이다. 정치인이나 불교계 지도자들이나 한결같이 소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와 우리 사회의 소통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불교는 사회와 소통하는데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뭔가 영성만 감이 없지 않다. 이유야 많겠지만 바로 교육이라는 내부적인 틀이 약한 데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포교가 중요한 것은 불교계 내부를 맑고 견고하게 한 다음 중생들에게 달려갈 때 진정한 사회적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종정 스님이 신년 하례에 소통과 화합 교육과 포교를 주문한 뜻을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가족을 포교하라

종교의 자유는 신성한 것이다. 종교의 선택에 대한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종교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종교든 포교(전도)에 소홀하려 하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종교의 선택에 대한 자유는 얼마나 작용될 수 있을까?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가족 모두가 각각 다른 종교를 선택했다면 그 가족은 적어도 종교적 측면에서 가족이 아닐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종교에 영향 받아 선택의 여지없이 부모와 같은 종교를 갖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신심이 돈독하던 사람이 배우자의 종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의 영향으로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가족이란 개념이 개인의 종교적 의사 보다 소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불자 가족 가운데 종교를 갖지 않는 경우가 부모 18% 배우자 33% 자녀 41%로 집계됐다. 배우자와 자녀를 불자로 만들지 않는 집안이 많다는 얘기가.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종교적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거기에는 사람의 책임도 있다.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족법회도 중요하고 가족을 동참시키는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이제 포교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확대해야 할 때다.

요즘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이다.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일자리는 부족한 탓이다. 기업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어보니 새로운 인력을 선발하는데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학교 도서관에 가면 이미 졸업한 사람들이 나와 취업 준비에 한창이다. 그들이 공부하는 책들을 보면 대개가 영어이다. 영어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탓이다.

기업만이 아니다. 대학 역시 교수를 임용할 때 영어 강의를 가능한지 하나의 척도가 되었다. 어느 대학 임용공고에 국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영어가능이 선발의 한 조건이었다. 조만간 국문학과 영어 강의가 가능한 사람을 뽑을지 모른다. 실제로 국사학에서는 이미 영어로 강의하는 곳이 있으며, 외국인 교수를 뽑아 한국어를 강의하는 곳도 있다. 세계화 시대 한국학을 위한 방향이라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영어는 언어이다. 개인적 능력과 성향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다. 그들을 교육시켜 필요한 곳에 쓰면 된다.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모두 영어에 능통해야 하는 분위기는 국력의 낭비이다. 실제 영어교육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가장 쪼박집마다 걱정이 크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의 생활방식까지 변화시켰다.

한 예로 지금 인천지역 신도시로 설립되는 송도는 그 안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국제학교



불자 세상보기

김경집

진각대학원 교수

정체성 있는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수도권에 거주하며 제법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송도에 입주하기를 희망하여 청약경쟁력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그 국제학교가 해외거주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내국인만 입학할 수 있게 하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처음 입학 가능성을 믿고 이 지역 주택에 청약한 한 사람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과연 영어 공화국다운 모습이다.

그 일만이 아니다. 강북지역에 설립된 국제중학교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여

교육,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제중학교 지정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 그렇지만 예정대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입학시험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강남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여 부모들이 영어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었다.

영어에 대한 집착은 부유층의 만이 아니라 이미 서민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기유학생은 2002학년도에는

1만 명을 돌파하였고, 2005학년도에 2만 명을 넘었다. 그리고 2006학년도 2만9511명으로 증가하다가 경제사정 악화로 2007년에는 2만7668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런 조기유학의 나라를 보면 미국이 1만4006명으로 가장 많고 동남아가 7421명으로 뒤를 이어 경제력이 부족한 서민층이 동남아로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노벨상은 서양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8년 노벨상 가운데 물리와 화학 등 기초과학분야를 수상한 일본학자가 여럿이었다. 그 가운데 영어에 몰입하지도 않고 해외에서 공부하지도 않았지만 세계적인 연구를 이루어낸 연구자가 있었다. 반면교사로 삼을 만 하다.

공부는 남이 시켜서는 못한다. 말을 몰기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듯이, 공부 역시 책상에 앉아있게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하지 않는 한 성과가 없다. 공부하는 자가 재미를 느껴 지속될 수 있어야 세계적인 연구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영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4.5세부터 유치원 골방에 갇혀 영어단어 외우고 수학공식을 푸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몇 개의 학원을 돌아다니며 외우기 바쁘니 무슨 창의력이 생기겠는가. 영어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체성 있는 교육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월의 테마-새출발

경인년의 힘찬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호랑이의 용맹으로 어려운 현실을 씩씩하게 이겨내겠습니다.

고요한 산사에 소복소복 눈이 쌓였습니다.

새해 아침의 절 도량에는 "짜! 짜! 짜!" 죽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영산전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숨죽이고 다가서면 거친 숨소리가 가슴을 뛰게 하며 들려옵니다.

고창군 복지관 직원들과 구합 31일부터 1박2일간 1년의 피땀을 회합하며, 천배의 절로 새해의 소망과 염원을 부쳐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인이었습니다. 비록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절을 올리는 순간은 한순간이 만년인 듯 깊었습니다.

2년 전 고창군에서 개관한 복지관은 통합형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와 최근에 완공된 푸드 마켓으로 구성했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들어섰을 때, 이곳에서 아무도

죽비소리 함께 시작하는 새해 새아침!

이 복지관이 크게 인기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이 대박 났습니다. 선운사에서 운영 하는 복지관은 불자가 많은 곳도 아닙니다. 1500년 역사를 지닌 도솔산 선운사였지만 무엇보다 불교를 세속과 접목하고자 하는 염원의 꽃이 이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복지관에 가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먼저 말씀합니다.

첫째는 친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절은 "친절"이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절은 "불친절"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 듯하지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복지관이 절은 아니지만 "복된 만남을 아름다운 인연으로"를 테마로 전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어르신을 뵈고 있습니다.

둘째, 밥맛이 최고다. 매일 복지관에 400명 이상의 지역 어르신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매일 어르신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분을 고루 갖춘 새로운 식단으로 "영양만점! 건강만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위해 멀리 상하면이나 해리 면에서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오실 정도로 경로식당은 당연 인기 최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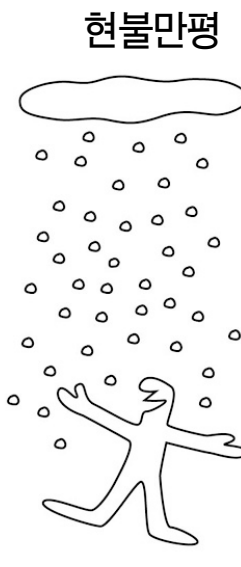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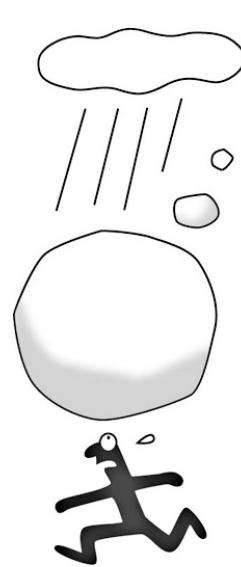
셋째, 깨끗하다. 2007년 개관 복지관은 최신 건물로 지역 주민과 어르신은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무엇인가 얻어오고, 배울 것이 많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은 문화교육과 이용시설 등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을 배울 기회가 없는 분들을 위한 한글교실과 어르신 건강을 위한 생활체조, 목욕탕 운영, 이미용실 운영 등 관심있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선택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실력은 작품전에 나가기도 하고, 발표회에 참여해 그 동안 배운 실력을 뽐내는 기회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관은 지역주민과 어르신을 위해서 하 무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2년 전 고창과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힘찬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공 스님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현불만평 박구원

누구에게 폭설 누구에게 서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odern Buddhism,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numbers.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Modern Buddhism,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numbers.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10학년도

동학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안내

동학사승가대학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사미니과 00명, 사집과 0명
시험과목 : 면접, 영불실기, 사미니율의,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사경문
입학자격 : 사미니계 수지자, 타승가대학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증명사진 2매, (6) 건강진단서
준비물 : 만의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세면도구
원서접수 및 마감 : 2010년 1월 2일(음 11월 18일) ~ 2010년 2월 2일(음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
시험일시 : 2010년 2월 3일(음 12월 20일), 2월 2일 오후 4시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789번지 동학사 중무소 ☎ 전화 042)825-2570 / 팩스 042)825-6068
교통편 : 고속버스 이용시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7번 버스 이용 - 중점 하차. 기차 이용시 대전역에서 107번 버스 이용 중점 하차. 동학사 입구 차량통제소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운행하는 동학사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학사 화엄학림 제2기 전문과정 학인모집

동학사 화엄학림에서 2010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전문과정 응시자격 : 기초교양기과 졸업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구니.
특 전 : 전문과정 2년 졸업자는 중단학림령에 의거해 불교학 관련 석사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자격이 부여됨. 연구기간 중 연구비 지원. 졸업 후 중강(부교수) 자격부여.
모집인원 : 10인 이하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 학림 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증 양면복사 1통, (3) 은사스님 추천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승가대학졸업(예정)증명서, (6) 건강진단서, (7) 수행이력서, (8) 학업계획서, (9) 사진 5장(3x4)
원서교부 : 동학사승가대학 중무소 및 동학사 홈페이지
원서접수 및 마감 : 2010년 1월 2일(음 11월 18일) ~ 2010년 2월 2일(음 12월 19일) ※ 우편접수도 받으며 당일 오전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전형일시 : 2010년 2월 2일(음 12월 19일) 오후 1시
전형방법 : 면접 및 구술시험
준비물 : 가사, 장삼, 승려증, 필기도구
문의처 : 동학사 중무소 ☎ 전화 042)825-2570 / 팩스 042)825-6068 기타 자세한 것은 동학사 홈페이지 화엄학림 청구 참조